

법대 실사 조사

1. 법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3,4학년은 여학생의 수가 220명중 70명가량 됩니다. 약 3분의 1수준이죠. 그에 비해 2학년은 50명, 1학년은 90명정도예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학회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여학생입니다. 그에 비해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1,2학년은 학회쪽으로 모두 흡수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가 되면 학회에서 여학생들은 대부분 고시준비로 빠집니다. 3,4학년에게는 아예 투표를 권유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법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정력가정도로 강한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보통 고시를 준비하는 데는 그다지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수업시간은...

수업시간에 유세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세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히 여학우들이 많이 듣는 수업은 없어요. 그렇지만 고시용 과목에 특히 여학생들이 많아요. 민법총칙, 헌법, 채권법각론 등이 있을 수 있겠죠.

3. 학회에서는..

학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법철학회, 법사회학회, 공법학회 정도는 1년에 한차례정도 여성학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하는 인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법학회나 법철학회에서는 동쪽에 여성학 세미나커리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요청하는 사람들은 97정도고 98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커리를 찾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형사법학회나, 국제법학회, 사법학회에서는 사회과학쪽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간 남성중심적 분위기를 띄우는 곳이 이쪽 학회인데요. 반면에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학회실에 상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여학생들에 대하여.

여성모임인 동쪽이 있고, 인지도는 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학생들만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5. 기독모임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김성은을 기억하시죠 모두들? 김성은이 지금 일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연락처가 98로 바뀌었거든요. 98들은 그다지 골수 분자는 아닌듯...호호.. 약간 세력이 줄고요, 동쪽에 대한 위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